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6년 대선에서 외국인 개입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에 투표 시설의 사이버 안전을 검토할 것을 지시

Cuomo 주지사, 주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에 주와 카운티 선거 위원회와 함께 사이버 안전 방어를 검토할 것을 지시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방안을 세우고 보안에 대한 추가 조치 제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선거 과정의 진실성을 진일보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Cyber Security Advisory Board)에 주 해당 기관과 주 및 카운티 선거 위원회와 함께 뉴욕 투표 시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보안 우선순위를 가려내어 추가 보안 조치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의 선거 시스템을 방해하는 중요한 보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의 진실성은 민주주의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런 핵심 원칙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투표 권리를 확장하는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뉴욕에서는 선거 시스템을 개혁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미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해킹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은 우리 선거 시스템을 보장하고 우리 선거의 신성함을 보호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뉴욕주는 우리 선거 시스템을 향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할 만단의 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3년에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첨단 전략을 보유하고 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행정부에 조언하고 주정부의 중요한 시설과 정보 시스템 보호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합니다. 전문가팀에는 다음의 인원들을 포함합니다.

- Richard Clarke, Good Harbor Consulting, LLC의 회장 겸 CEO,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통령의 전직 특별 고문
- Shawn Henry, CrowdStrike Services의 회장 및 최고 보안 책임자
- William Pelgrin, 멀티 주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Multi-Stat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MS-ISAC)의 설립자, CyberWA, Inc.의 CEO, 및 Global Cyber Alliance의 이사 및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
- Philip Reiting, Global Cyber의 회장
- Peter Bloniarz 박사, 뉴욕주립대 올버니 분교(University at Albany)의 연산 및 정보 대학원(College of Computing and Information) 전직 학장 및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 상임이사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보안 자문 위원회는 차량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주 정보기술 서비스 사무국(Stat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및 주정부 및 카운티 선거 위원회와 함께 주에서 다음 선거 때에 닥칠만한 최고 수준의 위협을 가려내고 주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혹은 추가 투자를 통하여 잠재적 취약성에 대해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90일 이내로 주지사와 주 선거 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2016년 선거 기간에 표출된 잠재적인 러시아 개입 의혹이 보고된 이래 뉴욕주가 시행한 광범한 대책 중에 가장 최근의 조치일 뿐입니다. 행정부(Executive Branch), 주 선거 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뉴욕주 카운티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및 연방 조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주 정보 본부(State Intelligence Center)는 주 정부 및 카운티 선거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체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전한 투표 웹사이트 백업 계획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DMV의 전자 투표 등록 시스템의 종합적인 보안 검토, 주 선거 위원회 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에 대한 검사 및 주 선거 위원회에서의 네트워크 충돌과 시스템 로그에 대한 첨단 감시 등을 포함합니다.

뉴욕주 정보 본부는 연방 기관과 기타 주의 자원으로 뉴욕과 연결된 보안 통신 채널의 지원을 통하여 잠재적인 파괴 활동에 대한 보고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카운티에 24시간 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밖에 선거기간에 주간 브리핑을 통하여 위협을 감시하고 협력기관 사이에 추가 조정을 합니다.

###